

# 청소년부모 양육지원가의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경험

김지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A study on experience of childcare service providers for adolescent parents

Ji-Hye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에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천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부모 양육지원가의 역할과 역량을 조명하고 서비스 제도화와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양육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양육지원전문가 3명을 심층면접하고 이들의 사례 일지 기록을 수집하였다. 주제분석 결과, 6개의 범주와 2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양육지원서비스 참여 경험에 관한 6개의 범주는 “양육지원서비스 참여 동기”, “제공된 서비스 주요 내용”, “청소년부모와의 관계 형성 노력”,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 확장”,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 위기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양육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운영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양육지원가, 일반적 질적 연구, 융합 서비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participants who have provided a childcare service,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childcare service for adolescent parents. The author used a purposive sampling method to select 3 cases with experiences related to childcare service, collecting data via direct interview and by obtaining a written text describing their case management. An inductive (open) coding approach was utilized to draw themes and categories from the data. The 6 categories describing service providing experiences of the study participants include “motives for participate a childcare service”, “contents of service provided by participants”, “tries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adolescent parents”, “deepening of understand about adolescent parents”, “limits of providing service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were discussed for childcare services on adolescent parents having crisis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Key Words : Adolescent parents, Childcare service, Childcare service providers, General Qualitative research, Convergence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 Ji-Hye Kim(tochee@hamail.net)

Received July 26,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 1. 서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변화는 각 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원서비스와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의 가족에 관한 관심을 요구한다. 이에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임신, 출산, 초기 양육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임신, 출산 및 초기 양육기 취약 계층의 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생애 과정상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중적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민감한 돌봄이 필요하다[1.2 재인용].

최근,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2018),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0,040명 중 3,422명으로 5.7%였으며, 이중 피임을 실천한 경우는 59.3%에 그쳤으며 첫 성관계 평균 연령은 13.6세이었다[3]. 청소년들의 성 경험률은 증가하고 첫 경험 시기는 저연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피임을 실천하는 비율은 낮아 계획되지 못한 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 인공임신중단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는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 어렵게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였어도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회복되지 않은 정서적 스트레스,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 등의 문제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2].

이에, 청소년이 겪는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와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임신감 등위기 및 상담에 관한 연구를[4] 비롯하여 양육을 선택한 청소년 미혼모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 및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5,6], 출산과 양육, 부모 경험에 관한 연구[7,8], 학업 중단[9] 및 정신건강[10,11]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청소년부모(부부)이다.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여 부모가 된 이들은 홀로 자녀 양육을 맡아 미혼모·부의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법적 연령의 제한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거나 법률혼 관계에 있는[12]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청소년 한부모 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돌봄과 지원의 대상에서 거의 배제되어 왔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특별지원 및 「한부

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지원제도가 있지만, 두 법률 모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13]<sup>1)</sup>.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을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인 한부모 가족으로 한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법적 부부인 청소년들이 제도적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청소년부모에게 부모가 있으면 이들을 부양의무자로 간주하여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우며(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이 아님), 근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13]. 미혼모자가족지원시설 및 한부모가족시설의 입소 대상이 아니며, 미성년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을 꾸렸음에도 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취업, 거주지 마련 등에 제한이 있다[12].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부모가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발달 주기상 청소년기에 있다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생애 주기 과정상 학업 등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은 가족과 사회에 긴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일탈로 간주된다[4].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부모 됨은 당사자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업이며 장기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14]. 학업중단, 저임금 근로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환경, 생활고로 인한 채무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생활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13].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청소년부모의 좋지 않은 환경은 곧 심리 정서적 스트레스를 부가시켜 자녀 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 양육 관련 지식과 경험의 부족, 원가족과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열악한 사회적 지지망,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지원 근거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결여 등이 스트레스를 가중하면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배가시키고, 심각하게는 자녀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15]. 십대 부모는 혼인 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고,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이 쉽지 않아 이혼하기 쉽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16]. 부모 역시 아직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발달과정에 돌봄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동

1) 2021년 2월 26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되었다.

의 장래, 가족 관계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가족 전체의 문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17].

이와 같은 청소년부모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통합적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임신기부터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활과 자녀의 발육상태를 살피고, 청소년부모의 정서적 안정, 학업,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며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청소년부모의 자립,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7].

그러나 청소년 산모, 부모, 자녀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 해외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부모라는 말이 낯설고 청소년 부부와 자녀를 위한 정책과 서비스는 거의 전무 한 실정이다. 청소년부모 당사자는 원가족의 빈곤과 학대, 좋지 않은 가족 관계 등으로 인해 임신 이전부터 가출한 상태가 많아 사적 지지자원도 열악하여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원의 서비스 역시 미흡하다. 일반적으로 부모 됨의 과정은 주변의 지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 됨의 생애 전환기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14]. 특히, 준비하지 못했던 임신을 하고 출산과 양육, 가족을 형성하게 된 청소년부모에게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 됨의 적응과 자립, 청소년으로서의 발달과업·정체성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지 자원의 부족으로 양육위기에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소년부모의 열악한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의 마련, 해외 지원서비스 사례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양육위기에 있는 청소년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지원을 하는 서비스 도입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3]. 이와 같은 가정방문형태의 양육지원서비스는 청소년부모의 고립을 예방하고, 아동의 발달과 영양 상태, 심리정서상태를 확인하고, 물리적 안정감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일상생활, 진로 등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가정방문 형태의 지원서비스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제공자로, 그들의 역할 이해·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 기존 가정방문 돌봄서비스의 대표적인 형태인 아이 돌보미 사업 및 노인 방문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도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많은 부분 좌우된다고 보고한다[18,19].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해, 역할 정립 및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내용 및 체계의 구축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 및 서비스 이용 경험뿐 아니라 서비스의 주요 주체인 양육지원가 관점에서 서비스 주요 내용과 역할, 어려움이나 이용자와의 관계 경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업무의 표준화 및 교육 과정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에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실천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서비스 내용과 역할 정립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체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서비스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선행 연구

### 2.1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청소년부모는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라는 발달기적 특성과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자원이 취약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과 지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자녀 양육에 위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부모 개인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생계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부모 됨에 대한 교육,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생활 지원 및 교육과 같은 대면 중심의 서비스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부모의 특수한 상황과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가정방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13].

미국의 여러 주정부에서는 10대에 임신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된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TAP(Teen Parenting Program)/TAPP(TeenAge Parent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보육,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가족계획, 경제적 지원, 주거, 의료, 식료품지원, 영양 교육, 법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한다. 간호사-가족 파트너십(Nurse-Family Partnership:NFP)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청소년임산부 및 산모를 방문하여

그들의 첫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전관리, 출산 후 자녀양육서비스 지원, 청소년부모의 자립 지원, 피임교육, 학업지속 등을 지원하는데, 평균 17개월 동안 25~30회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17재인용].

영국은 자녀가 출생한 후 10일 이내에 health visitor가 방문하여 지역간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본다. 가족간호사파트너십은 취약 계층의 청소년 산모와 청소년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훈련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준다. 주거문제, 부모교육, 자녀 양육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고 지원한다. 아일랜드는 정부 기관과 지역 내 유관기관을 통해 청소년부모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10대 부모 지원프로그램은 20세 미만 부모의 임신에서부터 그 자녀가 2세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부모와 그 가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정서 지원, 부모교육, 관계개선, 주거 지원, 교육지원, 직업훈련, 자녀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되었다[13 재인용].

청소년부모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방문서비스는 청소년부모뿐 아니라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미국의 NPP 프로그램은 청소년 산모 및 출산 자녀의 건강에 기여하고,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 청소년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 35% 감소, 조산 위험 20% 감소, 자녀가 2세에 이르는 시점에서의 취업률 2배 상승, 고교학력 취득 10%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영국의 가족간호사방문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에서도 10대 청소년부모·자녀의 발달, 학습준비도, 학업성취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스코틀랜드의 평가에 의하면, 청소년부모의 정신건강 증진, 자기효능감 개선, 청소년부모의 교육 및 고용의 개선, 자녀 학대 위험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17 재인용].

이처럼, 원가족과 단절되거나 지지 자원이 부족한 청소년부모에게 양육지원가의 방문은 직접적인 돌봄 제공과 양육지원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의 삶에 주요한 지지 체계가 됨을 알 수 있다. 정기적인 생활 점검, 관계 지속, 심리적 지지 제공, 교육은 부모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한 기반을 형성해주고 삶의 전환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생계비·양육비·교육비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성인과 부모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부모의 열악한 현실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해외의 사례 검토를 통하여 청소년부모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서비스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청소년부모자립지원단체에서는 20대 이하의 청소년부모에게 1:1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하며 주 1회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년부모에게 아기돌봄 및 양육지도,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20]. 또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옹호 비영리 단체의 지원을 받아 미혼모지원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청소년부모 양육지원 서비스가 수행되었다[15]. 이 서비스는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지원가가 방문하여 산후조리부터 아이 돌봄, 생활 지원, 성 상담, 부부 관계 상담 등 가구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민간단체의 활동은 제도적 차원에서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및 사례관리가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된 양육지원서비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서비스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시범적으로 수행한 사업에 참여한 양육지원가의 서비스 제공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청소년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제도적 도입의 검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주요 내용 정리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어 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2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경험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과 자질이 강조되고 있다[21]. 이에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와 교육, 직무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경험하는 이용자와의 관계, 활동의 의미, 어려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22,23,24].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는 노인돌봄, 아동돌봄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방문 돌봄 서비스는 유급노동과 정서적 친밀성이 교차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돌봄으로서 주목되었으며, 저소득층 노인과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가 간에 유사가족관계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돌봄 종사자와 노인 간의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전인적 서비스 제공의 핵심 요소로 확인됨과 동시에 전문적 돌봄 관계 및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방문 돌봄서비스의 표준화와 업무 범위 및 근무 시간 명시 등의 중요성과 사전 교육과 정보 제공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요함이 제시되었다[19]. 요양보호사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업무의 특징과 어려움, 일을 지속하는 동기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25].

한편,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아이돌보미사업에 참여한 돌봄 제공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일가정 양립을 돕는 조력자이자 사회적 돌봄자의 역할에 의미를 두었다. 돌봄은 정서적 감정노동이 되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인성 및 전문성, 표준화된 양성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18]. 결혼이주여성에게 당사자로서 산모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들은 돌봄 활동에 대해서 자기 성장의 기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자원봉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26].

이처럼 질적 연구를 통해 가정방문 돌봄 활동의 의미, 업무의 특징,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어려움, 관계 경험, 일하는 동기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들은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 업무의 표준화, 이용자 교육, 서비스 제공자 교육 과정 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지원을 한 서비스 제공자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는 서비스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향후 서비스 내용 구축과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양육위기에 처한 청소년부모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지원서비스를 방문한 양육지원가의 서비스 제공 경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 주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유의적 표집을 하였으며, 청소년부모에게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에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청소년부모에게 100일 동안 양육지원서

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양육지원가 중 기관의 추천을 받았다. 추천자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양육지원가가 연구참여자자가 되었고, 총 3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기혼 여성이었으며, 30대 1명, 40대 2명이었다. 이들의 서비스 제공 평균 기간은 4개월이었으며, 양육지원과 관련된 경험은 베이비시터,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다.

자료수집은 면접과 문서고찰로 이루어졌다. 양육지원가의 서비스 제공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사람들이 지닌 지식이나 견해, 이해와 경험, 행동을 질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관점과 살아있는 경험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자료수집 방법이다[27]. 면접을 통해 참여 동기를 비롯하여 주요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청소년부모와의 관계, 활동의 의미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면접지에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지만, 개방적 질문을 하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면접은 연구자와 동료연구자가 진행하였으며, 1회 약 6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 및 비밀보장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은 후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면접이 끝난 후 전사되었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면접은 5월부터 7월 총 2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문서고찰은 면접에 참여한 양육지원가의 사례일지를 활용하였다. 문서고찰은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하거나 면접에서 누락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27]. 개별 면접이 모두 완료된 후, 3개월 이후에 면접자들의 사례 일지를 동의하에 공유받았으며, 이를 통해 면접 당시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도안 이루어진 서비스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3개월 기간 내에 주 1회 10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의 일지가 활용되었다.

Table 1. Study participants

Case number	Age	Service period	Experiences related to parenting support	case records
A	30's	3mths	babysitter	1 case
B	40's	3mths	volunteering	2 cases
C	40's	3mths	volunteering	1 case

### 3.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는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 전제보다는 연구 질문에 적절하게 답해줄 수 있는 연구 도구로서, 다양한 접근방법들을 관통하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것에 근거해 연구를 수행한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일관성보다 얼마나 적합한 연구 질문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해 냈는가를 중요시 하는 방법이다 [28]. 특히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과 효과 등을 알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응용학문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28,29].

본 연구는 청소년부모양육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양육지원가들의 경험을 통해,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역량, 어려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으로 일반적 질적 연구가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에 근거해서 면접, 주제분석의 과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주요 연구 질문은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에서 양육지원가는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지원서비스에 참여한 동기, 서비스 제공 내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청소년 부모와의 관계 형성 경험, 활동의 의미’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일반적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접근방법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주제분석을 통해 자료에서 패턴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주제를 찾아낸다. 주제분석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따르기보다는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중심개념을 도출한다 [28]. 연구자는 녹취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줄단위로 분석하며 의미 있는 문장과 구를 도출하고,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들을 찾고 개념을 추출하였다.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념들을 재검토하여 핵심주제 개념들을 도출하였다. 추출된 핵심주제 개념들을 자료 간에 유사성과 차이를 지속해서 비교하고 검토하며 재배열해 나갔다. 이와 같은 지속적 비교과정을 통해 각 핵심주제들을 통합하여 추상적인 범주들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자는 핵심주제들이 면접내용을 잘 반영하는지를 검토, 수정, 보완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정리된 핵심주제들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 3.3 연구의 엄격성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Lincoln &

Guba(1985)이 제시한 신뢰성, 전이성, 일관성과 의존성, 확증성을 연구 과정과 해석 과정에서 충실히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27]. 신뢰성은 연구결과가 참여자의 경험을 현실적이고 충실하게 서술하였는지 보는 것으로, 자료수집 기간 동안 면접 자료를 축적하고 해석된 내용을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하며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자의 분석과 기술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부합하는지, 연구참여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연구자가 이해하고 이를 표현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면접과 함께 양육지원가의 사례관리 일지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주제나 의미들이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 면접에서 확인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면담에서 전반적인 활동을 모두 이야기하기 어려웠으므로 기록 검토는 3개월 이상 제공된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면접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충실하게 기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 출처의 다원화는 연구결과와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이성은 연구결과와 일반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경험을 하는 다른 대상의 생활 세계와 통하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노인, 영유아, 다문화 분야의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연구결과와 유사점 등을 검토하였다. 서비스 대상자와의 밀접한 관계, 역할에 대한 혼란, 돌봄서비스에 대한 의미부여 등이 유사하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관성은 산출해 낸 결과와 수집된 자료 사이의 일관된 상관성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수긍할 만큼 자료와 분석 결과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고의 갭이나 거리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와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민감하게 인식하고자 하였다. 주제와 범주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원데이터로 돌아가 도출된 주제와 범주가 원데이터의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의존성 역시 자료에 근거하여 결과를 산출해 내었는가의 문제이다[27]. 면담 과정에서 핵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메모하고,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있는 그대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근거 자료에 충실하게 해석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자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확증성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구 과정 및 결과를 감사(auditing)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면담 준비 과정과 해석 과정에서 청소년

부모,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무자에게 제공하여 연구진의 편향적 해석이나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받았다.

또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해석 결과의 확장가능성을 위하여 분석된 내용은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동료 연구자 1인과 사회복지 실천가 2인에게 연구 과정 및 결과 분석의 적절성에 관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와 같은 동료 검토를 통해서 연구의 틀, 설계, 연구방식, 결과물에 대한 최종 검토를 받을 수 있었다.

## 4. 연구결과

### 4.1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동기

연구참여자들이 청소년부모의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참여 동기는 양육지원가의 실천 마인드와 태도의 기반이 되었다.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4.1.1 개인 경험으로 서비스 필요성에 공감

연구참여자 A는 언니의 이혼 결혼과 이혼으로 인해, 조카가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조카와 함께 생활하였다. 가까이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주위의 도움과 지지가 중요함을 몸소 겪었다. 이러한 경험은 베이비시터로 청소년부모가 연계되었을 때 활동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또한, 본인의 신혼 생활과 이혼 결혼 경험을 통해 자녀 돌봄과 양육은 주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소위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조차 여러 어려움이 있고 친정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점을 반추하며, 어린 부모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저희 언니가 19살 때 출산을 했어요. (중략)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조카를 낳고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친정에서 조카랑 언니랑 같이 생활했었어요. 언니가 그 자립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신앙이라는 울타리가 있었고 누군가 잡아줬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지만, 그때 잡아줄 누군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제가 애 낳고 너무 막막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더할 거예요. 저보다.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자기들도 어린데. (연구참여자 C)

#### 4.1.2 개인의 관심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연구참여자들의 자녀는 청소년부모와 비슷한 연령대로 대부분 청소년기였다. 자녀의 양육과 발달, 청소년기의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다.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부모교육을 받거나, 베이비시터 일에 오래전부터 종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면서 평소 양육과 교육에 관한 관심이 있어 양육에 대한 나름의 가치와 기준들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청소년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학교에서 하는 양육 돌보미나 양육 코칭 같은 거를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럴 때 관심 있게 많이 들었고 양육에 대한 코칭 기본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오셔서 양육에 대한 인성교육 같은 거. 인성이 되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어렵듯이 저도 생각이 되었나봐요. (연구참여자 A)

한편, 연구참여자들은 평소에도 타인과 이웃을 돕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지인에게 서비스에 관해서 소개를 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이라 생각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 제공을 업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기에겐 중요한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하였다.

입양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략) 제가 직접 입양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울 수 있는 일어서 저도 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B)

대표님한테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중략)...처음 아이를 낳고 난감한 상황에서 그런 청소년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구참여자 C)

### 4.2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내용

#### 4.2.1 일상생활 돌보기 및 교육

양육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기초적인 일상생활, 살림살이를 도와주며 교육하는 일이다. 본 서비스를 받는 부모들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우고 형성해야 할 시기에 원가족과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았

다. 이미 원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지원을 잘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식습관을 비롯한 청소, 빨래, 정리, 위생 관리 등의 생활기술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 교육과 경험이 부재했던 상황들을 이해하며 작은 부분부터 지원하고 교육하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거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해주야 그리고 이것들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습관화가 돼야지만 그다음에 \*\*이를 시기별로 놀아주는 방법 정서적인 교감, 코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이런 기본생활이 안 되면 그런 것들은 튕겨 나가게 되거든요.(연구참여자 A)

저희가 먹는 거는 생존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존조차도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두 끼는 먹는 거로 처음에는 먹는 거부터 가르쳤어요. (연구참여자 C)

일상생활지원의 범위는 광범위하였는데, 가전 작동법, 은행 업무, 병원 동행, 주민센터 방문, 여가 동행, 주방 가전 누수 해결 등을 지원하였다. 성인 보호자로서 함께하면서 청소년부모들이 일상에서 해결하기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지원하였다.

#### 4.2.2 돌봄 · 양육지원 및 교육

첫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 낯설고 어려운 일이다. 특히, 청소년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사전 정보나 자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유병을 삶고 이유식을 만들고 목욕을 시키는 등 기초적인 돌봄 기술에 대한 교육은 본 서비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제공되었다. 아이의 행동이나 표현, 증상 등을 질문하면 정보를 주기도 하고, 돌봄과 관련된 수행 과제를 부여하고 점검하면서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기본적인 돌봄의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아동과의 안정적인 정서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에 중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마음먹은 거 자체는 굉장히 큰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에 대한 시기에 적절하게 놀이방법 정서적 교감, 언어 대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기본은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A)

애를 처음 키우니까 사실 아기를 처음 키우는 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아기가 설사를 한다고 그러면 뭐 분유를 한 번 바꿔봐라 얘기도 해주고 아기를 덜컥 낳는데 한 번도 키워본 적도 없고 너무 어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우리도 키웠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그런 게 애들한테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 4.2.3 부부에게 여유 시간 제공

연구참여자들이 일주일에 1, 2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부모에게 힘들었던 육아 생활에 여유와 여가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었다. 아이를 돌보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비롯하여 포기하는 것이 많다고 느끼는 것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가정방문 서비스로 인해 생긴 여가시간은 육아로 인해 외출이나 개인 시간을 갖기 힘들어서 답답함을 느꼈던 청소년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협소한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생활하면서 쌓인 양육 스트레스가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다.

방문을 하면 부모가 은행을 가거나 미용실을 가거나 쇼핑을 가는 등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연구참여자 A)

그래서 밥을 먹고 애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니까 이번 주에는 나갔다 오겠다고 하면 나갔다 오라고 하구. 오후 다섯 시쯤 출발해요.(연구참여자 B)

#### 4.2.4 심리정서적 지지와 조언

연구참여자들은 가사와 양육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부모들의 심리 정서적인 부분들을 보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부 관계의 갈등, 아이에 대한 걱정,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진로에 대한 걱정들을 나누며, 경청과 지지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지지와 조언이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도록 먼저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부부간의 역할, 협력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하고, 진로 준비를 위한 노력, 현실적 조언 등을 하며 이들의 삶 전반에 관심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례가 지속 될수록 부부 관계 및 고부 갈등 등에 대한 조언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특별히 요청되는 서비스 내용은 아니었지만, 청소년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부분으로 양육지원서비스가 멘토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 근데 키울 수 있을까요?” 라든가 “저 이 아이 배 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두 번이나 감겨 있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그래서 제가 이제 괜찮다 그런 거 일반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출산의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서 \*\*이 만나지 않았나. (중략) 자기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애에게 그대로 주고 싶다 이런 거 같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저는 복지와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케어가 같이 가야 하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아이 낳고 돈만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 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개네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자기들이 다르다는 거. 다르지만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는 격려 같은 것들이 계속 이 아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연구참여자 C)

#### 4.2.5 부모와 자녀, 모두를 돌봄

양육지원가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돌보는 것이었다. 즉, 아동만 돌봐도 되는 일반적인 돌봄 서비스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본 서비스는 청소년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효과와 가치를 인식하지 않고 이윤적인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자녀와 청소년부모의 삶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형성하며 돌봐야 한다는 점은 더 많은 책임감과 역할의 과중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 것까지 정해진 시간에 제가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 되지만 이렇게 그렇게까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면서까지 이 아이에게 뭘 해 줘야 되고 살림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아이들은 대충 소홀하게 한다는 건 아닌데 업무적인 부분에는 훨씬 오버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조금 부담이 온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은 맘시터를 하는 기본 자체가 아이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부가적인 일이 있으면 솔직히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우리가 상대할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이잖아요. 엄마 아빠, 아기. 보통은 양육지원을 하면 아기를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모를 돌보는 게 더 큰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 4.2.6 개별 맞춤형 복합적 지원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일지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알 수 있었다. 상기된 서비스들은 하나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모의 개별 상황에 맞추어 복합적으로 제공되었다. 연구참여자 A의 사례는 일상생활 교육 및 지원뿐 아니라 부부간의 성교

육, 부부 상담, 부부간의 갈등 상담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B는 아기돌봄, 양육기술에 대한 지원, 집안 살림의 생활코칭, 흡연 및 수면 등 생활 습관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B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은행, 병원 업무 등에 동행하며 일상생활업무 지원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C의 사례는 진로 교육 및 검정고시 실패에 따른 위로, 아빠 역할에 대한 지도, 식사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아기돌봄 지원과 생활코칭 등을 중심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부부 관계, 진로지도, 생활 습관 지도 등이 이루어졌다. 각 개별 사례에 따른 맞춤형 통합 사례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4.3 청소년부모와의 관계 형성 노력

#### 4.3.1 청소년이자 부모, 두 간극의 혼란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와 관계 형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초기에는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청소년 부모들은 발달 단계로는 청소년 시기이지만, 부모 역할도 중요한 역할 정체성이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며 청소년으로 만나야 할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기대하며 만나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아이들이 분명 청소년 아이들인데 어쨌든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했고 엄연한 부부 사이인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벌써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이로 대해야 되나 부부로 이 아이들을 대해야 되나 되게 애매하잖아요.(연구참여자 A)

저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았지만, 이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자기들도 어린데 ‘근데 선생님 저도 어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연구참여자 C)

#### 4.3.2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청소년과 부모 두 간극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들과 관계 형성의 방향성을 수립하고 정리해 나갔다. 이는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이자 부모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다. 아이 같은 면도 수용하고 인정해 주면서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자고 관계의 방향성을 수립해 나갔다. 어떤 틀을 갖고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청소년부모로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들어주며 신뢰를 쌓아가며 안심할 수 있는 탐색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었다.

너도 16살 우리 아들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둘이 엄마랑 아

빠랑 또 아이스크림 갖고 티격태격하더라고요. 저희 큰애 둘째가 다투는 모습 하고 똑같더라고요. 일반가정의 모습이 그대로.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 청소년 그 아이들인데 단지 가정이 하나 더 생겼고 아이가 생겼다는 그 차이구나 그래서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모습만 가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해해 주면서 내 자녀같이 생각한다는 게 저는 가장 기본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처음에는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가야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지 생각보다 애들이 마음을 되게 잘 열어주더라고요. 필요한 건 애네들을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고 잘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어 아무지게 잘 한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힘이 됐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C)

#### 4.3.3 지지적으로 다가가기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과 부모’로서 청소년부모들의 두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며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지지적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며 다가갔다. 특히,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 경험이 부족했다는 점을 수용하며 언어사용을 조심하고 격려와 칭찬으로 다가갔다. 이러한 접근은 연구참여자들의 청소년부모에 관한 관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 행동과 가치들이 기반이 되었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서비스 제공 경험을 통해 양육지원가 가져야 할 태도와 관계 수립의 방향성을 수립해 나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 선택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지 않는. 내가 해야 될 말은 전달을 하지만 이 아이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언어 선택이라든가 그 아이들에 대해 감정에 대한 존중. (연구참여자 A)

위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느끼기에 선불리 애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인 거 같아요. (중략) 잘하는 거 하나를 계속 칭찬해주고 얘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기다려 주면서 이거를 해야 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는 격려 같은 것들이 계속 이 아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애들이 최근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컸는지 거의 공부 안 하고 게임 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부담감 때문에 회피하는 거라 하지만 넌 잘할 수 있다. 네가 안 해봐서 그렇지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이번에 하면은 애가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매일 수업한 내용을 카톡방에 올리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 4.3.4 성인과 새로운 관계 형성 기회 제공

본 양육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양육지원가와 청소년부모의 관계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멘토와 멘티 관계 특성을 갖는 부분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들이 원가족이나 성인들과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와는 다른 대안적 관계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이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진심으로 소통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하며, 새로운 관계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건강한 대인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요. (건강한 대인관계?)네. 부모와의 관계도 다 깨지고 친구들과도 문제 많고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친부모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희가 어쨌든 항상 너희 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너희에게 따뜻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 (연구참여자 C)

#### 4.3.5 양육지원가 역할의 적정선 유지

서비스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자녀와 청소년부모’ 모두를 돌봐야 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 과중은 소진의 원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지원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방향성을 수립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는 첫째,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즉, 선부르게 깊이 다가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선을 생각하며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있지만, 지나친 욕심으로 과도한 개입과 변화를 피함으로써 관계에 실망과 소진을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제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아 씨 뭘데 자꾸 와서 잔소리야” 이렇게 얘길 해도 시터분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내 지식 같으면 자꾸 잔소리하고 싶잖아요. 애정이 없다면 그 비용만 갖고 가면 되지만 그래서 씻어라. 내가 어제 여기 하라고 했지 이러면서 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언어 선택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지 않는. (연구참여자 A)

그냥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저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중략)... 그 전 단계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덜하죠. 왜냐하

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연구참여자 B)

두 번째로, 너무 큰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이다. 청소년 부모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며 다가가는 것이다. 천천히 하나씩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임하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향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이 안정되면 또 새로운 걸 하나 넣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3개월의 목표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습관화하는 거하고 집안 일들 빨래가 쌓이고 설거지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정리돼가고 있는 습관이 붙는 거에다가 이게 습관화가 되면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교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중략) 너무 크게 변화돼야 된다고 하면 저도 스트레스거든요. (연구참여자 A)

열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보살피면 변화가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그것은 좀 힘들어요. 그냥 이 상태만 유지해도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지 (연구참여자 C)

#### 4.4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의 확장

##### 4.4.1 원가족과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함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청소년 부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 시각보다는 이들이 처했던 여러 현실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조금씩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특히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부모들은 이미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상처를 갖고 있었다. 그들의 현재 상황은 원가족의 갈등과 단절,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결과일지도 모르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청소년부모를 탓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대할 수 있는 태도의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 잘 모르는 분들이 까져서 저거 뭐 하는 것이야 라고 그 아이를 비난만 했지 그 아이에 대한 고충이나 그런 부분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가정을 보고 이 아이들이 대충 이 아이들이 단순히 정말 까지고 이래서가 아니라 부모의 폭력으로 또는 부모의 외도로

가족이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었고 새롭게 알게 된 거였거든요. 단순히 이 아이들을 사춘기적인 방황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내면을 보면 정상적인 가족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폭력으로 인한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인식의 변화였던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그냥 이 아이들이 서로 너무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문화 속에서 생성된 가치관 없이 자기들을 지키고 이런다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고 그거는 엄청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도 사실은 다 그러고 다니는 데 (연구참여자 B)

저도 청소년인데 부모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대로 살아볼 기회가 없어서 못 살았던 아이들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낳았다고 저희들이 너희들이 행동의 결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한 대표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연구참여자 C)

##### 4.4.2 애정과 존중 욕구가 강함

위와 같은 인식은 청소년부모의 여러 특성 중에 애정에 대한 욕구와 존중의 욕구가 강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즉, 원가족에게 충분한 애정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경험으로 인해, 의지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데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들의 애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단어, 접근 방식의 방향성을 수립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제가 너무 이렇게 교만하게 그 친구들을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대화를 나눠 봤을 때 그 친구들은 되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거든요. (연구참여자 A)

이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애네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더 빨리 연애하고 더 빨리 결혼해서 더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애네들이 어쩔 이렇게 삶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접촉도 해야 하고 뭔가 이게 채워 줘야 하는데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어요. (연구참여자 C)

##### 4.4.3 양육 준비와 지원이 필요함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직은 양육의 기초적인 부분들과 부모 역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청소년기의 특성이 혼재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지원이 필

요한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감정적인 수용은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준비와 인식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언급하였다. 아동이 어린 초기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초를 형성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였다. 영아기는 돌봄과 양육기술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으로 인식되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재우기만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시간이 많은 시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양육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많고 편한 시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아이가 조금 있으면 크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에너지가... 또 놀아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기 전에 이것들을 확립을 해주면 좋겠다. (연구참여자 A)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을 해주면 할 수 있는 아이들거든요. 가정환경이 그래서 옛날 친구들, 너희 행동의 결과가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가 거둬야 하는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C)

#### 4.4.4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음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부모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가족 관계나 현실들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즉, 비록 원가족과의 건강한 관계 경험이 부족하지만, 그 시작을 이제부터 바꿀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였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청소년부모의 새로운 시작에 본인들의 서비스가 작은 기초가 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하였다.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결과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경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많은 나이긴 한데 뼈딱하게 딱 데로 가면 딱 데로 갈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긴 하나. 사회에서 한 번은 애들이 정말 마음잡고 잘살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 B)

저도 친정가정이 그렇게 좋은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희 부모와 상관없이 너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애들이 그 얘기에 되게 많이 놀라더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좋은 거를 많이 못 본 친구들인 거뿐인 거예요. 그냥 좋은 거 건강한 것들 보여주면 또 그거를 따라서 그거를 하더라고. (연구참여자 C)

### 4.5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의 의미

#### 4.5.1 모델링의 과정

연구참여자들은 본인들이 청소년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델링이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였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청소년부모들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였다. 관계 형성 경험에서도 제기되었듯이, 건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대안적 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양육지원가들의 태도, 행동, 언어사용, 생활 모습 등이 모델링이 됨으로써 청소년부모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시간으로 의미를 가졌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거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은 너희들도 쾌적하고 좋아 이제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관련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애들이 하게 돼요. 그리고 밥 같은 경우도 제대로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해서 있는 반찬 꺼내서 먹어 그렇게 하니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일상들을 보여주는 거죠... (중략)... 그냥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있어 이렇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도 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연구참여자 C)

#### 4.5.2 지지자원으로서 역할 수행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청소년부모들에게 사회적 자원이자 지지가 된다고 느꼈다.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그들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는 어른의 역할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들에게 필요했던 지지와 이해의 경험이 서비스 제공 관계 안에서 전해졌다. 청소년부모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지켜보는 지지자원의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부부간에도 서로에 대한 이해. 이성에 관한 이해도 있지만 누군가가 너를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지지도 되게 그 친구들한테는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A)

그냥 너희가 어쨌든 항상 너희 일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 어른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냥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너희에게 따뜻하게 있는 사람이 있어. (연구참여자 C)

#### 4.5.3 상호성장하는 기회

연구참여자들에게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도 성장하는 기회로 인식되었다. 종교적 동기가 강했던 참여자들에게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자신들의 자녀들과 부부 관계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서로를 보듬는 모습과 사소한 일들로 다투는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겪었던 부부갈등,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보기도 하였다.

애네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 보면서 제가 저희 부부 관계도 돌아보게 됐어요. 남편에게 항상 많은 걸 요구만 했는데 이 남자도 약점이 있는데 나는 그 약점을 받아줄 생각은 안 하고 완벽한 거를 요구하니까 싸움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애들도 서로 이렇게 받아주며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면 그게 어느 순간 행동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개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B)

#### 4.6 청소년부모양육지원의 어려움

##### 4.6.1 다중 돌봄 수행으로 역할 과중

서비스의 내용이 아이뿐 아니라 청소년부모를 함께 돌보고, 가사 지원과 양육지원을 해야 하므로 심리적, 육체적 부담이 과중하였다. 또한, 물리적 돌봄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역할 과중으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며, 보상 대비 업무량을 따지면 쉽게 하기 힘든 일이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만, 공식적인 지원서비스 체계가 된다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과중 및 적절한 보상 체계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실 맘시터라는 이 업무가 가이드라인 자체는 아이에 대한 안전과 보호 예를 들어 젓병소독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이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는 일절 하지 않는 거거든요. (중략)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선에서 해주되 맘시터라는 역할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못 할 거 같아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사실 여기서 신경 쓰고 몇 시간 허비하느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다른 가정에 가서 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돈에 대한 욕심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A)

##### 4.6.2 복합적인 접근과 사전 준비 요구

청소년부모에게 양육지원을 하는 것은 청소년부모와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의 성, 육아, 부부 관계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관계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겸비되어야 할 지식 및 기술, 마인드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틀에 맞추어 바라본다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낯선 성인에게 집을 공개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마음을

열고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탐색 시간 및 기술이 필요하였다.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그 시간에 잘 때워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게 아니어야 하는 기본이 돼야 하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모들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도입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이 서서히 서서히 (연구참여자 A)

아이들이 어렵게 살아왔던 아이들이다 보니까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지원도 필요하고 대표님처럼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저희처럼 일대일로 들어가서 생활 지원도 필요하고 (연구참여자 C)

##### 4.6.3 위기 상황 개입의 어려움

양육지원서비스는 일주일에 1~2회 제공되는 것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이나 지원은 어렵다. 사례관리자로서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며, 통합적인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자 및 전문가의 역할로 제안하였다.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바로 누군가 옆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정서적인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기 대표님 집에서 센터가 다 10분 거리 안에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용산에서 와요. 그래서 저희는 못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 4.6.4 반복되는 생활습관으로 인한 소진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부모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잠깐 변화를 보이지만 다시 반복되는 일상생활의 습관이나 정리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소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오랜 시간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부모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습관 등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였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느꼈다.

개선된 듯 하였으나 다시 문제가 반복될 때가 있고, 장시간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연구참여자 B)

양육인지 및 수행이 잘 안 되어 시간이 걸리는 점은 있어요. (연구참여자 C)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양육위기에 처한 청소년부모에게 시범적으로 제공된 양육지원서비스에 참여한 양육지원가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본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일반적 주제 분석 결과, 서비스 제공 경험은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지원 동기’,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내용’, ‘청소년부모와의 관계 형성 노력’,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의 확장’,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의 의미’, ‘청소년부모양육지원의 어려움’의 6개의 범주와 24개의 세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개인의 가족 경험 및 가치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동기는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부모를 바라보는 관점과 마인드의 기반이 되었고 봉사 활동으로서의 경향성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돌봄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활동가들 중 이타적 가치나 봉사 정신은 활동의 동기이자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였다[19, 27]. 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었지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개입 측면에서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었다.

제공된 서비스는 면접과 사례 일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일상생활 습관 관리 및 교육에서부터 아기 돌봄과 양육지원 및 교육, 여가시간 제공, 심리정서적 지지와 조언 등이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분야의 돌봄 서비스는 돌봄 당사자가 주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상황과 다르게 자녀와 양육자인 청소년부모를 돌보고 기초 생활 교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돌봄서비스와는 다른 측면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은 아이 돌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입뿐 아니라 청소년부모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다. 처음에 양육지원가는 청소년이자 부모라는 두 개의 역할 정체성을 가진 두 간극에서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청소년부모를 부모로서 대해야 할지, 청소년으로 대해야 할지 혼란을 느꼈다. 이에, 양육지원가는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하고 관계 수립의 방향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는 곧 청소년이자 부모로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가족 경험, 성인과의 관계 경험을 이해하면서 지지적으로 다가가며, 건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큰 목표를 세워서 조급해하기보다 적절한 선을 지키고자

하였다. 돌봄서비스 대상자와 유사 가족 관계 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상을 경험하며 관계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19].

연구참여자들은 서비스 제공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부모를 일탈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원가족과 관계가 어렵고 상처를 받은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고, 애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가 큰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가족 자원이나 사적지원망이 부족하기에 부모와 아동의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자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진로와 가족을 구성하여 아동을 양육하며 다시 시작할 수 존재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관계 형성 노력, 이해의 확장은 양육지원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닌 모델링의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그들을 지켜봐 주는 지지자의 역할의 의미와 연구참여자도 성장하는 상호성장의 의미가 있었다. 돌봄서비스 제공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들 발견하는 것처럼[18],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자신의 삶에 갖는 의미들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과 부모 모두를 돌보고 교육하고, 지지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 과중의 어려움을 겪었다. 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복잡적이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전문지식, 이해 등이 요구되는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일로 인식되었다. 또한, 단기적인 개입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이나 통합적 개입의 어려움이 있었고 양육지원가와 전문 사례관리자의 협업이 필요한 업무였다. 또한 반복되는 생활 습관 등 변화와 진전이 더디다는 점에서 때로는 소진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부모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부모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관점 정리가 필요하다[15]. 연구결과,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들은 청소년부모에게 청소년과 부모의 모습 모두를 발견하였고, 두 체계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청소년이자 부모의 역할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을 수용하며,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즉, 두 가지 역할 정체성을 기반으로 두 트랙의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존재로서 정책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기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서구의 청소년부모 돌봄 서비스의 주요 내용 역시 청소년의 학업과 진로, 자립에 대한 지원과 부모로서의 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7]. 최근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 정책 형성에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양육지원가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광범위하고 성이나 의사소통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육 청소년부모, 미혼모, 청소년기의 성, 임신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사전 이해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틀에 맞추어 바라보지 않고 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점은 서비스 실천에 기반이 되므로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관점에 대한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전 교육을 통한 업무의 표준화 등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19, 21,23,25,26]

셋째, 양육지원서비스는 통합적인 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30].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지원근거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과 함께 청소년부모가족지원서비스 사업(안)을 제시하였다. 본 사업(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사례관리 하에 돌봄/양육지원, 주거, 교육, 취업,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31]. 따라서 양육지원가와 청소년부모를 매칭하고 관리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두 체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며, 긴급한 위기 상황은 사례관리자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와 욕구를 발견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은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돌봄·취업·주거·학습·상담 분야 등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안에서 양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양육지원가에 대한 모집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서비스가 경제적인 이윤의 부분만을 생각하면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많고 책임이 큰 업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돌봄 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동기가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봉사적 측면만으로 접근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돌봄 지식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 형성 기술이 요구된다[18,19,26]. 따라서 본 프

로그램이 청소년부모와 양육지원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양육전문가의 풀을 어떻게 구성하고 확보할지, 사전 교육 및 관련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성할지, 양육지원가 관리는 어떻게 할지 등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질적 수준이 높은 양육지원가 매칭이 본 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에 주요 요인이므로 양육지원가 관리 및 운영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자격이나 돌봄 관련 경험, 교육 경력 요건 및 기준 마련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양육지원가에 대한 지원, 보상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서비스의 내용이 아이뿐 아니라 청소년부모를 함께 돌보고, 가사 지원과 양육지원을 해야 하므로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과중하였다.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은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24].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역할과 업무를 공동분담 할 수 있도록 양육지원가를 1가정 2인 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육체적 과로 및 책임감, 역할 수행에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봉사의 차원에서 참여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훈련된 서비스 제공자와 역량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인력은 합리적인 보상 체계 안에서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다[32].

한편, 본 연구는 서비스의 주요 주체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부모의 욕구와 경험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시범 사업 단계로 양육지원가의 풀이 적어 소수의 경험만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갖는다. 서비스 제공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고찰하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참여자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청소년부모의 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및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경험에 대한 분석,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경험을 충분히 고찰하고 필요성에 공감한 참여자들의 경험은 향후 본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서비스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 의미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아직 청소년부모를 위한 양육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체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서비스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체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Malmquist, A., L. Jonsson, J. Wikström, and K. Nieminen. (2019). Minority Stress Adds an Additional Layer to Fear of Childbirth in Lesbian and Bisexual Women, and Transgender People. *Midwifery*, 79, 1-7. DOI: 10.1016/j.midw.2019.102551
- [2] H. J. Kim & Y.J. Jang. (2020). A Qualitative study on public support for vulnerable women in pregnancy, childbirth and early child rearing. *Family and culture*, 32(2), 1-30. DOI : 10.21478/family.32.2.202006.001
- [3]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2018). *The 14th (2018)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tatistics*. Seoul: :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4] H. B. Bae & H.J. Lee. (2020). A Study on the Pregnancy Conflict Experience of Non-Married Femal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1), 85-14. DOI : 10.21509/KJYS.2020.01.27.01.85
- [5] M.H.Yoon & J.Y. Lee. (2002). Characteristics of Teenage Unwed Moth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3), 149-16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3685>
- [6] Y.M.Bae. (2001).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Unmarried Adolescent Mothers-Focusing on Individual, Family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institute of Women*, 10, 51-80. [file:///C:/Users/USER/Downloads/kyobo\\_10287619%20\(1\).pdf](file:///C:/Users/USER/Downloads/kyobo_10287619%20(1).pdf).
- [7] H.Y. Kim. (2010). Teenage Single Mom's Experience of Childbirth and Caring : In between Being the Subject and the Other.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26(4), 101-131. UCI : G704-000349.2010.26.4.002
- [8] B.S.Hong & M.A. Nam (2011). A study on Community Support Systems for Young Single Moth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9), 19-52. UCI : G704-000387.2011.18.9.008
- [9] H.J.Lee & J.A. Song (2011). A Case Study of the Meaning of School Dropout of Teenager Unmarried Moth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3), 57-83. DOI : 10.16999/kasws.2011.42.3.57
- [10] M.A. Nam (2013). A Study on Eco-Systemic Factors Effecting Depression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of Young Single Moth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4, 91-125. UCI : G704-000946.2013..44.008
- [11] B.S.Hong (2013). Effects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Depression, Anxiety, Satisfaction of Single Young Moth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2), 43-72. UCI : G704-000387.2013.20.12.001
- [12] J.H.Eun & K.W. Im (2019). *A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adolescent parents and improvement measures*. Seoul: The Beautiful Foundation &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 [13] M.S.Huh (2020). *A status of supporting for Parenting Adolescent Parents, Overseas Cases and Implication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27553>
- [14] J.N.Song, H.H.Kang, Y.H. Cho & S.H. Lee (2014). *A Qualitative Research on Married Teenage Mothers: Adaptation Through Supporting Relationship*. Seoul: ChildFund Korea. I410-ECN-0102-2018-300-000165888
- [15] J.H.Sung & J.H.Kim(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100-day companion project for Parenting Adolescent Parents*, Seoul: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 ChildFund Korea.
- [16] Eshbaughm, E.M.(2007). Teen Mothers: Marriage, cohabitation, and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1(1), 3-16. <https://doi.org/10.1080/10522150802007162>
- [17] M.S.Huh (2021). *Resolving the isolation of teenage single mothers: Challenges for Family visiting service introductio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34353>
- [18] G.J.Lee & K.Y. Chung (2012). Childcare Service Providers' Care Experience and Their Meanings of Social Car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73, 419-44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46965>
- [19] H.K.Choi(2008). A Study on Quasi-Famili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Care Workers and Their Low-Income Elderly Clients. *Family and culture*, 20(3), 1-30. DOI : 10.21478/family.20.3.200809.003
- [20] KINGMAKER. <https://kingmaker.or.kr/>
- [21] N.Y. Kim (2017). Revision and Validation of the Psychological Empowerment Scale for Care Service Providers Working at Human Service Organizations : Focusing on Care Workers for the Elderl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4(2), 379-397, DOI : 10.46415/jss.2017.06.24.2.379
- [22] D.S. Son (2010).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Certified Caregiver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8, 299-322.
- [23] K.W. Um (2011).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system of the care worker.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10(2), 87-112. <http://www.earticle.net.ssl.proxy.uhs.ac.kr:8010/Article/A137528>



- [24] S.O.Lim & H.H. Kim(2011).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ional ident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care workers fro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13(3), 151-17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25164>
- [25] M. J. Kim, & Y. J. Kim, (2012). Study on the Elder-Care Experiences of Home Care Workers.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6(2), 159-194.  
 DOI : 10.22867/kaqsw.2012.6.2.159
- [26] S.Y. Park &, Y.S. EO(2018). Work Experience of Mother Helping by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the Cases of Educated Woman of the Multicultural Mother Helper Training. *The Journal of YeolinEducation*, 26(4), 153-173.  
 DOI : 10.18230/tjye.2018.26.4.153
- [27] M.Y. Ko(2009). *Qualitative Case Study Research*, Seoul:chongmok.
- [28] I.S.Kim (2016). *Qualitative Methods and Analysis in Social Welfare Research*. Gyeonggi-do: Jipmoondang
- [29] K.H. Ha, S.K. Kahng, N.H.Kim, S.Y. Kim., & K.H. Kim(2019). A Study on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ocial Welfare Officer's Job Performance by Strengthening of Visiting Community Servic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ducation*, 48, 31-61.  
 DOI : 10.31409/KJSWE.2019.48.31
- [30] Y.N. Oh(2020). Support measures for young. Policy forum on Integrated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0383>
- [31] H.J.Song, H.J.Bae, B.Y.Sun, & S.J.Kim(2020).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support policies for adolescent parent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oul: Hnark.
- [32] K.H. Ha, S.Y. Kim., & N.H.Kim (2020). Qualitative Case Study on Decision-making Supportfor Involuntarily Hospitalized Psychiatric Patients: Focusing on the Procedural Assistance Pilot Program.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67(67),

김 지 혜(Ji-Hye Kim)

[상위]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질적연구
- E-Mail : tochee@hanmail.net